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lassking@inochong.org
	한국노총		02-6277-0080		pr@inochong.org

한국노총 산하조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줄이어 - 조직적 실천을 통한 대선 승리로 노동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것 -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지지선언,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5월 19일(월)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에 의해 탄압받고 유보되었던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제조업과 소재 산업을 대표하는 화학노련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담보하는 천군만마와 같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화학노련 황인석 위원장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의 가치와 평등,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조직적 실천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본부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경남지역본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노동존중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압도적 승리가 없다면 내란세력은 다시 꿈틀거리며 노동자 민중의 목을 죄어올 것”이라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와 연대가 살아 숨쉬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남지역본부 정진용 의장은 “경남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비전 ▲사회적 대화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철학과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지도자 등을 지지의 이유로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도 오후 3시 충북지역본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에 매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북지역본부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은 충북권 전체의 성공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조합원을 교육하고, 담벼락을 넘어 노조가 없는 옆 공장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해 내자”고 역설했다.

충북지역본부 강국모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과 세대 간 갈등, 노동양극화를 만들었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북 완주지역지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노동조합, 금융노조 부산소재 조직, 대전 교원공무원기본권 실천단 등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 및 지지선언은 내일(20일)도 계속된다.

제주지역본부(10시 30분)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13시), 금융노조 민주평등연대협의회(13시 20분), 전력연맹 여성위원회(15시)가

지지선언을 이어간다. 또한 전격연맹 충남세종본부(10시), 우정노조(11시), 공무원노동자(15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